"놀토엔 고창복지관에 가자"

염색 · 공예 등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에 인기 짱

"이번 놀토에는 무얼 하지?"
"고창복지관에 체험학습가요!"

가정 내 특별학습 등을 위해 실시중인 놀토(노는 토요일)는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사찰이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진행중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운영하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 이하 복지관)에서는 놀토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놀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했던 고창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지관의 놀토 프로그램의 호응은 대단하다.

복지관은 지난달 천연염색프로그램을 운영한데 이어 7월 13일(토)에는 100여 지역청소년과 함께 한지공예 프로그램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7월 13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한지공예 프로그램에는 놀토를 맞은 지역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정혜옥 한지공예 강사의 지도에 따라 전북지역 특산품인 한지 제조법 등을 배우며 한지공예품을 제작 · 관람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이 직접 오방색의 예쁜 한지를 이용해 잎모양의 예쁜 한지를 연꽃. 국화, 매화들의 꽃문양으로 꾸며 실생활에 자주 쓰는 부채와 연필꽂이를 만드는 시간은 인기가 높았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손규리(여 · 대성중2) 학생은 "전북지역 특산품이라지만 생소했던 한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한지공예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의 한지를 느껴 보람있었다"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063)563-0009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서 달오름음악회 연다

문화복지연대 25일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습을 드러낸 익산 미륵사지에서 음악회가 열린다.

문화복지연대(대표 장용철)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에서 '익산 미륵사지 달오름음악회'를 연다.

'I Love Temple 제5회 전국 폐사지 투어'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진각종,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한다.

6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공연에서는 금동제사리외호 유물을 유등작업화 한 연못연출 공연과 익산 미륵사지탑 모형 재현공연, 대중가수 안치환, 국악인 박애리,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비보이 갬블러팀이 출연하는 달오름음악회로 꾸며진다.

장용철 대표는 "이번 폐사지 투어 콘서트는 역사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폐사지가 더 이상 도난, 도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소중하고 올바르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 국민대상 폐사지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02)942-0144 김성우 기자

정읍 일광사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가 7월 16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윤달을 맞아 봉행된 생전예수재에 이어 개최된 경로잔치는 13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해 난타공연, 마술쇼, 국악한마당 등의 공연과 어르신들의 장기자랑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또 지역내 다문화 가정 5가구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추첨으로 다양한 경품이 제공됐다.

승천 스님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며 "상경하애(上敬下愛)의 빛나는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3寺 3色' 템플스테이

화엄사 · 천은사 · 도림사에서 3박4일

전남지역 3개 명찰에서 각각 독특한 체험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종삼), 천은사(주지 영관), 곡성 도림사(주지 금동)는 7월 2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3차에 걸쳐 '3사(寺) 3색(色)'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남도의 명찰중 문화재 보고인 화엄사에서는 전통불교문화체험이 진행되며, 남방제일 선찰인 천은사에서는 방장선원 참선과 야생녹차밭 포행 등의 일정이 펼쳐진다.

곡성 도림사에서는 도인의 숲길 걷기, 탁족, 반석위의 달맞이, 타종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는 체험형 사찰답사 프로그램으로 3개 사찰의 특색을 살려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화엄사 관계자는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사찰문화를 체험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에 남도 지역 사찰을 연계해 여러 사찰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남도 명찰의 풍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광학원 교직원 백양사서 연수법회

종립학교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시몽)은 7월 20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연수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150여 교직원이 참석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법문과 암자 참배, 불교 먹거리 강사 김미옥씨의 '건강한 먹거리' 강좌 등을 진행했다.

한편 정광학원은 교직원들의 종교활동을 위해 불교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매월 교직원 법회와 초하루기도를 봉행하고 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연수법회를 개최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발전에 공헌한 고인 잊지 말자"

선각총림 옴천사 노 前 대통령 49재 봉행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7월 10일 선각총림 옴천사에서 조계종 백양사 원응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내외귀빈 등 1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49재를 봉행했다.


7월 10일 선각총림 옴천사에서 봉행된 故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

이 날 법회에는 국회법사위원장 유선호 의원의 추모사를 시작으로 황주홍 강진군수, 이종헌 도의원, 원응 스님이 추모사를 봉독했다. 식전행사로는 고혼을 위로하는 살풀이, 승무 등 다양한 의식행사가 치러졌다.

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은 영가법어에서 "이 시대의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을 잃었으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불자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을 극락세계로 편히 모시자. 불교발전에 공헌하신 고인을 영원히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 후에도 추모행렬이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061)433-2233 조동섭 기자

장보고를 만나요

신흥사, 중국 답사여행

장보고의 후예들인 완도 도서지역 어린이들이 해상왕 장보고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 부설 장보고아카데미는 7월 28일~8월 1일까지 중국 산동성 일대의 적산법화원 등 장보고유적답사를 떠난다.

도서지역 어린이 30여 명을 비롯해 40여 명으로 구성된 답사단은 1200년 전 동북아의 해상을 장악했던 장보고의 중요활동지역인 완도 청해진과 중국 산동성 적산법화원 등의 유적을 답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답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도서지역에 살면서 도시의 아이들처럼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돼 의미가 깊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 前 대불청 전북지구 정인택 회장

"청년불교 활성화 위해 뭐든지 합니다"

정읍하면 누구나 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정읍은 사찰 수도 많지 않고 불자수도 적은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정읍에서 젊고 활동적인 청년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 중인 정인택 前 대불청 전북지구회장(사진)을 만났다.



정 前 회장은 30년 전인 고등학교 1학년때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으러 산에 올랐다가 친구를 따라 절에 참배한 것이 인연이 돼 불교에 입문했다.

정인택 前 회장의 불연(佛緣)은 친구 따라 절에 가면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었다. 하지만 정 前 회장의 인연은 룸비니, 불교학생회, 대불련 등을 거치며 소위 엘리트 불자코스를 거치는 동안 원력과 신심이 더하며 지중해졌다.

정읍청년회장을 맡은 1995년부터는 지역사암스님들의 협조를 얻어 올해까지 15년간 자비나눔 사생대회를 개최해왔다.

자비나눔 사생대회는 매년 500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1996년부터는 인근 군 법당인 정읍연대의 법당을 찾아 자신의 군대 생활 경험담을 들려주며 미래세계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한달이면 2번씩 격주로 전주교도소의 미결사(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소자 방사)를 방문해 재판을 앞두고 후회와 회한으로 번뇌중인 사람들의 안심(安心)을 도왔다.

2001년부터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제10 · 11대 회장을 연임하기도 했던 정인택 前 회장은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 불교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헌신적으로 지역불교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젊은 불자들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 前 회장은 청년불자간 신심을 북돋는데도 힘써왔다. 매년 전북지역 청년회원들이 모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고, 낙후된 호남불교 활성화를 위해 2003년에는 전남 불청과 함께 백양사에서 호남불청대회를 열기도 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정인택 前 회장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다"며 "젊은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 함께 불법홍포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벚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